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09년도 표어 ☉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금주 토요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다.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이다. 조상숭배 제도는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성경적으로는 우상숭배요,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유교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는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 < 예배 순서 >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 도 . . . . . 다함께
- 성 시 . . . . . 시편 103편 1-2절 . . . . . 인도자
- 찬 송 . . . . . 310장(통일 410장) . . . . . 다함께
- 기 도(또는 사도신경) . . . . .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 . . . . 레위기 23장 39-44절 . . . . . 인도자
- 메시지 . . . . .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 . . . . 인도자
- 찬 송 . . . . . 559장(통일 305장) . . . . . 다함께
- 주기도 . . . . . 다함께



##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 레위기 23장 39-43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키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석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초막절(草幕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본래 초막절은 수장절(收藏節)이라고 불렀다(출23:16). 가을 추수기에 곡식을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하였다. 초막절은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었으며,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었다(레23:34). 그러므로 초막절은 연중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다. 초막절은 단순히 그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또한 지켜졌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햇과일을 먹으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아가페타운 Opening 감사예배

## 10월10일(토) 오전10시 아가페타운 자유의 집에서 이번 주간 봉사의 마지막 손길 필요해



사랑의 집(아가페타운 본관)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호산나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열심으로 사랑하며 준비해 온 아가페타운 1차 공사가 지난 마무리되어 앞으로 호산나학생들이 사용할 3채의 건물에 '사랑의 집', '평화의 집', '자유의 집'으로 이름을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교회는 호산나 장애인 전문대학, 대한학교가 입주하는 opening 감사예배를 10월10일(토) 오전10시 아가페타운 자유의 집에서 드린다.

오늘 현재 아가페타운 1차 공사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며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팔트 공사(9월29일(화) 예정)만 남겨놓고 있다. 또한 공사를 마무리하며 아가페타운 정문에 골드케이스(일종의 네온사인)로 된 간판도 세웠다.

아가페타운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이번 주간동안 건물 내부 등에 남아있는 건축 자재와 폐기물, 집기류를 옮길 남자 성도들의 봉사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전 해왔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번 주에 꼭

방문하기를 바라며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사전에 접수하면 되며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평화의 집



자유의 집

# 2009 사명자대회

발대식-10월4일(주) 찬양예배 시간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 2009년 사명자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10월4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먼저 50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밝히는 24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가 있다. 릴레이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정해진 공동기도제목과 개인기도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50일 동안 하루 종일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장소 웨스트민스터 홀) 두 번째로 매

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두 번 성도들이 직장가 가정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다함께 기도하는 열렬히 기도(다니엘 기도)가 있다. 그 다음으로 전도할 생명을 본인이 대신자로 작정하고 깊은 기도와 정성으로 양육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태신자 작정', 성경암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암송대회', 사명자대회특별새벽기도회가 있다.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의 불을 이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제94회 총회에서 서울교회는...



▲ 제94회 총회 아침예배 시 '오직 말씀만으로' 제하의 메시지로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설교를 하는 이종윤 목사

▼ 제94회 총회에서 서울교회는 미지림 교회 지원을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시행하여 전국교회에 모범을 보여 표창을 받았다. 우측은 표창패의 내용이다.



### 표창패

예총표 제94-19호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당회장 이종윤 목사  
귀 교회는 전교인이 협력하여 총회 교회자립사업이 정착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귀 교회는 총회 교회자립사업 시행5년(2005-2009) 동안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특별지원을 하여 목회자들의 생활보조와 교회의 자립화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그 공로를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1)

주후 2009년 9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지용수 목사

# 호산나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함께 신청키로

우리교회는 아가페타운 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호산나 복지법인을 학교법인으로 함께 신청하여 빠른 시일 안에 법인허가를 득하기로 하였다.

# 부목사 0명, 호산나대학 교목(겸 사감) 청빙한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할 부목사 0명과 호산나대학 교목(겸 사감) 0명을 청빙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 아가페타운 미술 전문위원 위촉

아가페타운을 복지시설답게 치장하는 미술전문위원들이 위촉된다.

- 위원장: 김예환 권사
- 서기: 이명아 집사
- 위원: 권성자 집사, 최문주 집사, 고선옥 권사, 김환경 성도, 김정미 집사, 변재숙 성도

# 신앙강좌1부 특강

신앙강좌1부(부장 김대호 장로)에서 이단 '신천지교'에 대한 특강을 김영한 목사님(송실대학교 기독교학원장)을 모시고 9월 27일 12시30분 904호에서 열린다.

# 2009년 성경암송대회

이번 대회의 범위는 로마서 1장-5장 까지이며 10월18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10월23일(금)에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 금주의 성구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2-14)

'Friend,' he asked, 'how did you get in here without wedding clothes?' The man was speechless. "Then the king told the attendants, 'Tie him hand and foot, and throw him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Matthew 22:12-14 [NIV])



2009 열린 바자 스케치

# 광야의 기적

지난주 목요일, 오전 10시 개장 예배로 시작되어 금요일 오후 6시30분까지 계속된 2009 열린 바자는 작은 사랑을 모아 크나큰 세상을 열어가는 시간들이었다.

모두들 열심이었다. 누군가는 서울교회 교인들을 두고 사막에 가서도 우물을 파고,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라고 했다. 올해의 바자 수익금은 마침 아가페타운이 10월 10일 오픈을 앞두고 있어 더욱 값지게 쓰여질 귀한 헌물이 될 것이다.

수시로 바자 매장을 찾으신 이종윤 목사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다.

“서울교회 성도 한 명 한명은 석양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들던 5천 명 장정 속의 한 어린 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드려 기갈의 광야를 풍성한 식탁이 되게 하신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특히 인생을 살면서도 오히려 배고프고 무력한 장정이 되지 아니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든 등외품 인생인 어린아이처럼 열린 바자에 참여한 이들과 더불어 빛도 없이 기쁨으로 자

원하여 바친 이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느 해보다 기증품이 많았던 2009 열린 바자는 그래서 수익금이 더욱 많았고 풍성했다. 특히 한티공원의 풍성한 먹거리는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다른 매장 매출 상승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힘들게 준비하고 땀흘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이같은 작은 사랑이 마음이 아프고, 지체가 연약한 이웃에게 큰 소망이 된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

서울교회에 오시어 첫 번 바자를 경험한 박노철 목사님은 서울교회의 바자에 대해서는 익히 소문을 들으셨다고 했다. 다만 역대 매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셨으나 막상 바자가 열리고 몰려오는 구매품과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셨다.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바자에 쏟는 열정적인 헌신은 오직 서울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셨다.

사랑의 섬김, 나눔의 행복. 진정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허숙 권사(편집부)



개회예배



2009 열린 바자 시작



스타벅스에서 판매액을 기증하다



인기만점 헌옷매장



목사님 저도... - 목사님 저서 친필 사인회



누가 뽑힐까? - 경품추첨



우리로 한 몫을 합니다



한티공원을 가득 메운 이들



식탁교제도 함께 아며





기독교 신앙과 제사문제

#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할 "참된 신"(the true God)이라고 거듭 반복하여 선언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4)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절대적인 언명으로서 다른 모든 "신"들이라고 거저 이름하는 것들, 곧 죽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십니다(cf. 시 115:4-8; 렘 10:3-16). 성경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렘 10:10)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세계와 구속역사, 그리고 그의 백성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김은수 목사(협동목사/오리문답부지도)

**아직 믿지 아니하는 많은 친지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을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신 5:29).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벧전 1:4), 곧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전 1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란을 막고 잠간동안의 거지된 화평과 평안을 위하여 조상제사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덮어두고 가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0:34, 37-38).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야 할 것입니다(롬 5:1). 참된 화평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요 14:27).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말씀과 함께, 또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많은 친지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을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최유현 성도(12교구)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한 후 크레페이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및 실내악 과정을 졸업하고 지난 달 귀국하여 유학가기 전 섬기던 가브리엘 찬양대와 시온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다.

오늘은 "나는 당신을 기쁨으로 따르렵니다"(요한수난곡/J. S. Bach)의 2곡으로 찬양 드리며 오르간 김현정 성도, 피아노 김에스터 선생, 플루트 황효진 선생이 수고한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9일(화) KIMCHI Theological Journal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44회 정기노회를 준비하기 위한 영동시찰회가 9월29일(화) 오전 11시 행복한 교회에서 열린다. 영동시찰회에는 이종윤 목사와 부목사(전원, 그리고 장로총대 10명이 참여한다.
- 사임 : 1999년 8월8일부터 부목사로 서울교회를 섬기던 이규정 목사는 사임하고 대구서광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 이규정 목사 이임에 따라 3, 4교구와 전도위, 세계선교대학, 지도는 장석남 목사. 새가족부 지도는 지혜영 전도사. 대살로니가 전후서반은 박노철 목사가 맡는다.
- 승진 : (16교구) 임대훈 집사 두산중공업 UAE 두바이 발전 지점장
- 연주회 : (5교구) 강민정 집사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9월29일(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정동) (고등부) 박지승 성도 (박종철집사 한현숙집사 딸) 9월 29일(화) 부천시향과 플루트 독주협연 부천시민회관
- 수상 : 박세영성도(임마누엘찬양대, 청년부) 제5회 세종음악콩쿠르 서양음악부문 일반부2위
- 이사 : (6교구) 서명조 집사 김효순 권사 가정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1단지 705호

- 주간식당 봉사: 빌립선교회(9월27일) 안드레선교회(10.4)
- 금주의 식사 : 백정순 권사 가정(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 Opening 위하여
3. 민족적으로 하나님 섬섬케 하는 구습 사라지도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